

# 농업관광지개발을 통한 농외소득증대 방안

(원삼면 학일리를 중심으로)

이 강 수\*

## I. 서 론

1960년대초 이후 지속적인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실시로 공업부문이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국민경제는 급속도로 확대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산업간, 지역간 격차는 물론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2000년도 농가소득은 도시 가구소득의 8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2010년이면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소득의 70.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외소득증대가 중요한 농정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의 위축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농외소득원개발촉진법(1983)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을 제정하여 농외소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농가 인력의 노령화와 WTO 체제 이후의 시장개방, IMF 이후의 경기후퇴 등의 영향으로 기존의 농외소득 정책으로는 농가의 농외소득증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농촌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소득사업의 개발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새롭게 떠오르는 것이 농업관광(agricultural tourism)산업이라 할 수 있다. 아직 기반이 취약하지만 국가 경제성장과 도시화 진행 추이 근로자의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흡수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민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촌의 농외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원삼면 학일리를 중심으로 한 바람직한 농업관광지의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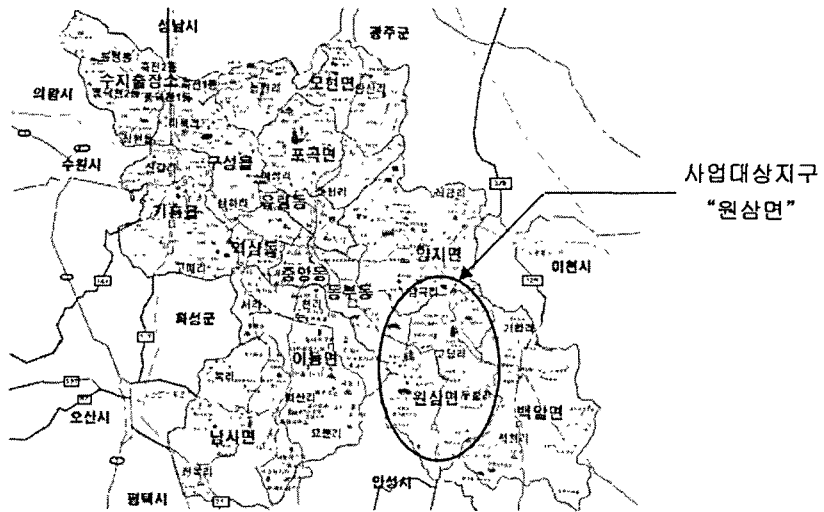
\* 경기 용인 원삼농협 조합장

## II. 본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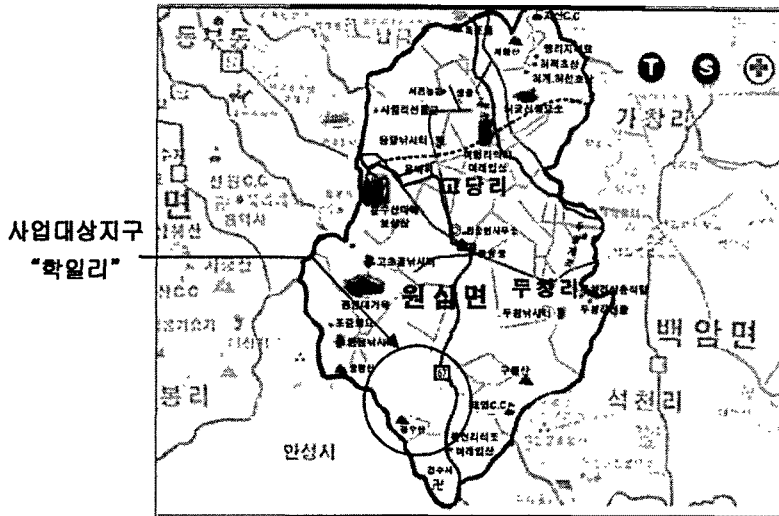
### 1. 원삼면 학일리의 농업관광개발 현황

#### 1) 대상마을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학일1리 학일마을



용인시 관내 지도



사업대상지인 원삼면 학일리 위치

## 2) 학일리의 입지 조건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에 위치한 학일리는 차령산맥의 여맥인 해발 460m 구봉산을 동남쪽에 두고 남서쪽에는 쌍령산, 문수산과 북쪽으로는 건지산이 둘러 쌓여 있는 산간분지형으로서 임야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작을 중심으로 하는 산간농촌지역으로서 과수, 시설채소, 특작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도시근교 지역으로 경부·영동·신갈안산간고속도로와 인접함은 물론 17번, 42번, 43번, 45번 국도가 사통팔달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경기도박물관 등 국제적 관광명소와 24개의 골프장, 1개의 스키장, 7개의 눈썰매장 등 각종 위락시설이 근거리 산재해 있다. 또한 학일리 마을은 도시 근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옛날 그대로의 농촌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로 오염되지 않은 환경과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퇴색되지 않은 본래의 농촌 모습이 남아 있는 곳이다. 농업에 있어서는 농약 등의 과다사용과 생산량 증산에만 치우치던 관행농업에서 탈피, 2000년 친환경농업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 오리쌀 재배로 환경농업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 향상 및 농업관광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3) 마을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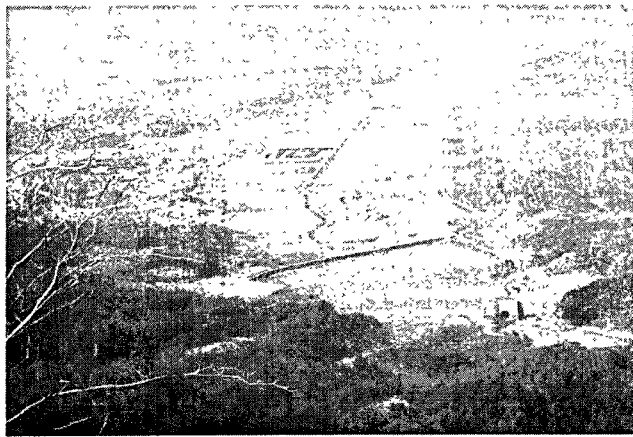
가구수(호)			인구수(명)			농지면적 (ha)				산림면적 (ha)
계	농가	비농가	계	남	여	계	답	전	과수원	
58	47	11	159	80	79	55.7	36	17	2.7	53.5
연령분포		30	40		50	60		70		
농가		6	9		15	13		15		

마을주민들의 평균연령은 50세 전후로 좀 많은 편이나, 주민들의 고령화 현상의 표면적인 단점이 있는 반면, 오히려 내면적으로는 신세대 부부들에게는 부모님처럼 느껴지는 포근함과, 아이들에게는 옛날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정겨움,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들을 함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4) 마을환경 및 개발현황

휴식공간으로서 마을 상류에 쌍령저수지 및 계곡과 해발 400m의 쌍령산과 약수터, 사찰, 호랑바위 등 유적지가 있어 등산로 및 산책로 개발이 용이하고, 농업환경보존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해 전 주민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으로 친환경농업(쌀, 과수, 울무,)등의 농업체험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공장 등 산업시설이 없어 환경오염이 안된 청정지역으로 반딧불과 하천에 미꾸라지, 가재 등이 서식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지역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하여, 2002년 4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아름마을 가꾸기’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앞으로 ‘약초꽃 향기마을’이란 테마로 약초재배 및 판매, 팜스테이, 생태관광 등으로 농외소득 창출 뿐만 아니라 젊은 농촌인력의 고정과 귀농현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을 전경

## 2. 농업관광지 개발로 인한 농외소득 증대 방안

### 1) 문화적자원의 효율적 이용

학일리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유적 제7호인 조중회 묘소, 승가사 사찰, 3학사중 한사람인 추담 오달제의 사당 등 문화적 자원을 관광개발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일리 지역뿐만 아니라, 30분 이내의 근거리에 위치한 와우정사, 미리내성지, 경기도 박물관, 한국민속촌 등 인근관광지 활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특성화된 주제

자연자원만 가지고서는 관광지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생태적으로 희귀성이 있거나 경관이 우수한 자원을 지역 내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심으로 주제화 한 생태관광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학일리 지역이 농촌인 만큼 약초를 재배하여 도시민들이 약초를 값싸게 구입 하거나, 고장출신 한의사와 연계하여 진료 및 처방을 하는 하나의 관광상품 개발도 특성을 지닌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도 소박한 농촌의 인심을 훈훈하게 느낄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 농사체험, 도토리 줍기, 봄산나물캐기 등과 같은 관광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지역단위의 상시 민속축제를 개발하여 이를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일리의 경우 전통장담그기 행사가 인근 도시지역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도농교류라는 물꼬를 트면서 소비자는 학일리에서 생산되는 무농약 콩으로 직접 메주와 두부 등을 만들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생산자인 학일리 주민들은 확실한 판매망확보로 직거래 방식의 좋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농외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자신감 고취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 3) 정부와 지방자치기관의 협력

지역사회 주민이 주체가 된다고 할 경우에도 지방자치기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농촌지역과 같이 자본이 취약하고 사회기반시설이 미비한 경우에는 기반시설비의 지원이나 사업비의 지원 및 용자 등의 측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든 현재까지의 관 주도식 지역사회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지역개발활동을 적극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일리 지역은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추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아름마을가꾸기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정부와 용인시, 원삼농협의 후원을 받아 주민주도형의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 4) 타 지역과의 차별성

관광자가 관광지를 선택할 경우에는 어떤 지역을 여행함으로써 다른 곳에서 얻기 힘든 색다른 경험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 고유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일리 지역 내에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를 하여 자기 지역 고유의 독특한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만일 자기 지역 내에 다른 지역의 그것과 크게 차별화 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미약할 경우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동원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5) 연계형 농업관광지개발

학일리 지역만으로 방문객들이 요구하고 있는 다양성과 연계성을 살려 내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의 대다수 실패를 맞본 관광농원이나 자연 휴양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인접한 지역을 하나의 관광루트로

연계하는 개발은 현재까지와 같은 농촌지역의 휴양시설의 단조로움과 규격화를 벗어나 자연속에서의 다양한 체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개발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농촌지역은 그것들을 인위적으로 구분하

기가 매우 어려운 지리적 밀집성을 갖고 있어서 이들 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은 중소규모의 단위 지역사회를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학일리지역뿐만 아니라 여타의 지역을 농업관광지로 개발할 경우 위의 그림처럼 각 마을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이들 지역이 서로 연계한 관광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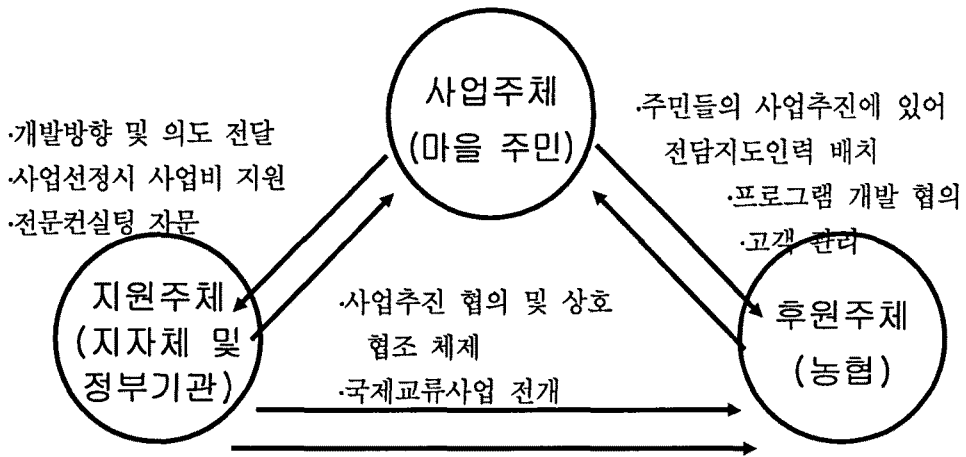
원삼면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단지 현황

### 6) 농촌의 가장 큰 관광자원은 훈훈한 인심

농산어촌지역의 가장 매력적인 관광요소는 훈훈한 인심일 것이다. 인정이 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소박한 인상은 도시민들이 갈망하던 고향의 정취를 느끼기에 충분한 요소일 것이다. 유럽사람들이 농촌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상업화되지 않은 농산어촌의 훈훈한 인심을 느낄 수 있고 조용한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 시골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그 동안 격심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농산어촌지역 특유의 훈훈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7) 추진체계



## 3. 우리 나라의 녹색·생태관광개발 사례

### 1) 생태관광마을 사례-“용호리 초록마을 가꾸기”

초록마을 용호리 가꾸기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용호리의 주민들이 생태마을의 원리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전통적 생산방식을 현대에 맞게 응용하여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나가려는 주민주도형 생태관광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용호리 주민들은 용호리를 초록마을로 가꾸어가기 위하여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으로 생산방식을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청정한 주변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 마을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 마을의 관광안내와 함께 패키지형, 농가체험형, 설계형, 개별예약형 등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농산물과 함께 자체 생산한

가공식품도 현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가까이에 호수를 끼고 있어서 호수에서의 낚시, 보트놀이 및 얼음놀이와 함께 마을 뒷편의 산을 이용한 등산코스과 삼림욕 코스, 산계곡을 이용한 계곡물놀이 코스 및 유기 농가체험 상품 등도 개발하여 이를 주민들의 생태적인 삶과 함께 묶어서 특성화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초록마을용호리가꾸기, 2000.)

## 2) 생태관광마을 사례 - 제주도 서귀포의 예레생태관광마을

제주도 서귀포시 예레동은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가 주를 이루는 마을로서 1,188가구에 인구 3,726명으로 이루어진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1995년에 '예레환경연구회'를 발족시키고 예레마을을 생태관광마을로 가꾸어 나가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점과 함께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유산이 남아있어서 이를 관광개발에 이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생태마을운동에 관한 안내도 하고 있다. 공원묘지와 쓰레기처리장, 하수처리장 시설이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들을 어떻게 생태관광과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제주예레마을, 2000.)

## 3) 산촌생태마을 개발 사례 - 전북 무주군 진도리 생태마을

전북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생태마을은 귀농자들이 마을을 이루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적인 귀농을 이루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마을에서는 귀농자 10가구가 거주할 마을을 이룬다는 계획아래 귀농자들이 출자하여 부지를 공동으로 구입하였다. 마을의 조성계획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이 마을 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마을의 주된 추진주체는 주민추진위원회라는 점이다. 주민추진위원회는 원활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원의 특성이나 기술 보유도에 따른 역할분담을 중요시하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무주군에서는 이들에 대한 귀농정착지원금, 주택개량자금지원과 마을 진입로 포장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생태마을 조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태마을 조성에 관한 지방 조례"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박과 박, 1999.)

#### 4) 어촌관광마을 개발 사례 - 경남 남해군 서면 서상리 장항마을

이 마을은 계획단계부터 주민참여, 주민의견의 수렴, 공동출자를 통해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마을의 관광개발사업은 1994년의 남해군에서 추진한 “해안관광마을 조성사업”을 시발점으로 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마을에서는 ① 조용하고 한적한 어촌마을의 모습을 지켜야 한다 ②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개발이다 ③ 환경친화적 개발이다 ④ 지속 가능한 개발, 즉 장기적으로 생각한다 ⑤ 독특하고 개성 있는 매력을 만들어 나간다 ⑥ 마을의 문화와 인정이 큰 자원이다 등을 마을개발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1차로 여관과 해수풀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남해군에서 지원금을 받아 투자하였다. 경관정비 차원에서 주민들이 경과저해요소들을 자발적으로 철거하였고, 군의 예산지원으로 주차장, 진입도로 및 교량확장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마을에서는 외지 자본의 개발 참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외지인에게는 토지매매를 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 개발초기에는 주민들간에 이견이 없지 않았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개발방향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박과 박, 1999.)

#### 5) 갯벌생태관광지 - 함평만과 변산해수욕장 갯벌탐사 프로그램

우리 나라에서 갯벌생태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함평만 갯벌탐사코스과 변산반도 갯벌탐사코스를 들 수 있다. 1999년에 함평군에서 조성한 돌머리해수욕장 갯벌체험학습장은 국내 최초로 시도한 갯벌생태 전문가가 진행하는 갯벌생태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 기간 이외에는 안내자의 해설을 들을 수 없는데, 관광객이 연중 언제나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도 갯벌 탐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변산반도국립공원에서도 전문가의 안내해설을 받아 갯벌을 관찰할 수 있는 갯벌탐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나 아직은 일정기간 체재해서 갯벌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는 본격적인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변, 2000)

### III. 결 론

용인시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성장율은 11.1%로 전국에서도 매우 높아 앞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관광객이 1,000만명 이상으로 앞으로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면 1박 2일의 근거리 관광인구의 수요가 용인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관광인적자원을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의 대상지인 원삼면 학일리로 전환·유도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충지로 기대된다. 따라서, 일반관광지가 아닌 농업관광지라는 특수성을 안고 개발에 따른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학일리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특성화된 주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과의 지역개발사업을 위로부터의 하향식(from the top-down)개발이 아닌 상향식(from the bottom-up)개발로 바꾸어 주민주도형으로 사업을 하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피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자의 만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이루어내는데, 지역 고유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이 필요하며, 관광의 형태가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관광객이 농산어촌지역 특유의 훈훈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일리지역뿐만 아니라, 인근지역과의 연계한 관광개발을 통해 원삼면 전지역을 농업관광지로 개발하여 기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등의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농산어촌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와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활기가 넘치는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대안으로서, 남겨진 환경유산으로서의 농촌지역을 각종 오염행위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대안으로서, 농약으로 찌든 농림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한 대안으로서 농업관광지개발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IV. 참 고 문 헌

1. 박명수 등. 1993. 우리의 산촌-산속마을의 새로운 진로 pp.93-120. 일신사
2. 박시현, 박병오. 1999. 주민 자율적 농촌마을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 pp.37-4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3. 변재면. 2000. 주민주체에 의한 농산어촌지역 연계형 생태관광 개발 방향.  
pp.209-246.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7권 제1호
  4. 박영수, 심경구. 1994.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농원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pp.67-77.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26권 제1호
  5. 임상봉. 1997. 한국의 농산업 개발 : 농공단지와 관광농원을 중심으로  
pp.41-56.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4권 제1호
  6. 유병서. 2000. 도농간 소득격차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pp.89-102.  
농업경영·정책연구 27
  7. 이영만. 1998. 농촌소득증가를 위한 농외소득 증대방안. pp.133-144.  
89농진청심포지엄
  8. 최민호. 1978. 농가의 농업소득 증대방안. pp.55-62. 한국농업교육학회지  
제10권 제1호